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

- 일본의 대학과 지역이 연계하는 마을만들기 추진실태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University

- Focusing on Case Studies of Collaboration Planning Program between Local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in Japan

김철영*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Kim, Chul-Young*

국문요약

도시화의 진전과 개발이 완료된 기성시가지에 있어서 다양한 도시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활성화와 도시재생에 관한 이슈는 도시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역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지역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제의 해결에 있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지역의 대학들이 지역활성화에 관련된 사업과 정책에 있어서 관심과 참여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대학과 지역주민 혹은 지자체 등과의 올바른 협력체계의 구축은 주체들 간의 상호 공생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도시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이 연구는 지금까지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소극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대학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활성화에 있어서 성공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일본의 대학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사례에 주목하여, 대학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있어서 성공적인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Abstract

In existing urbanized downtown areas,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cities is now becoming a new paradigm of urban redevelopment. In particular, universities which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supporting various local functions but failed to fulfill their function so far, now have many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projects or policies related to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Establishing good collaboration systems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help build up mutual symbiotic relationship and develop a successful urban revitalization model. Considering changes in social and urban paradigms,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some key implications from case studies of collaborative planning programs between local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in Japan in which universities play a key role in revitalizing local communities through active collaboration planning.

주제어 : 도시재생, 상호공생, 연계프로그램

Keywords : Urban Revitalization, Mutual Symbiotic, Collaborative Planning Program

본 연구는 2012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Chulyoung Kim, E-mail : kimcy@yu.ac.kr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대학¹⁾은 중세 유럽도시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대학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대학은 지역사회의 교육과 연구, 지역사회의 공헌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도시의 인구집중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해 개발가능 자원의 부족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대학이 가진 기능들 중에서도 특히, 지역사회 공헌기능과 관련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인 기능을 재조명해보고 이를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활동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최근 외국의 도시들은 대학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에 의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은 사회적인 평가의 상승과 이미지의 개선, 주변지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일본의 도시들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마을만들기가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일체가 되어 각종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들도 대학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주체 혹은 파트너로 인식 전환을 하게 되면서, 대학이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²⁾. 이러한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와 함께 서울시의 경우, 대학주변지역의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 대학가 주변의 가로환경개선사업, 낙후된 상업시설의 활성화와 휴식 및 여가공간의 조성을 위한 대학담장개방과 녹화사업, 대학주변지역의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대학주변지역과 상업밀집지역 등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적인 측면에 치중한 계획으로 대학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활성화 및 기능적인 측면의 접근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국내적인 상황에서, 대학과 지역사회는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다방면에서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물리적·기능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학과 지역사회의 갈등의 해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이어나갈 수 있는 상생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지역활성화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추진에 있어서 대학이 지역활성화와 관련된 도시계획과정에서 사회적인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를 통해 최근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재생과 활성화에 중요한 참여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기능과 존재 의의의 변화에 주목하여 일찍부터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선진사례를 선정하여, 사례도시의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들 프로그램의 추진실태 및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는 크게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로 구성되어지며, 이론연구는 주로 주제와 관련된 논

1) 오늘날의 대학(University)은 길드의 성격을 띠는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라 불리는 중세의 르네상스 운동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발생된 것이 시초이며, 도시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은 도시 내의 시설이었다.

2) 배웅규·이창호 2007, "대학주도의 대학마을 재정비방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2권, 제6호, p.90.

문, 참고서적,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도시의 관련조직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사례연구는 대상도시의 시청과 관련조직, 대학 등을 방문하여 인터뷰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 및 분석하였다. 사례도시로는 일본의 카나가와현에 위치한 요코하마시로 선정하였다. 일본의 모든 도시들이 지역의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프로그램 건수를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2007년에 도시재생본부에서 시행한 조사³⁾를 참고하여, 각 도시들에 있어서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를 통한 협정의 체결 건수⁴⁾는 파악이 가능하였다. 일본의 정령지정도시⁵⁾들 중 카나가와현의 요코하마시가 대학과 지역의 협정체결 건수⁶⁾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요코하마시를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연계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도시로 선정할 수 있었다.

이상의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일본에서도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코하마시의 사례를 통해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의 추진실태 등을 이해하고, 이들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요한 특징들을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2.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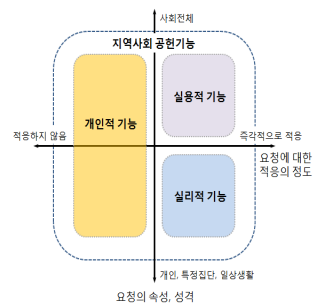
2.1. 대학의 존재의의와 사회적 기능의 변화

2.1.1. 대학의 기능

지금까지와 같이 대학과 지역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아래에서, 대학이 향후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어떠한 관계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지는 「대학이 가지는 기능(존재 의의)」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2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하면 「대학의 설치목적은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1964년에 개정된 학교 교육법 제52조에 의하면, 대학의 설치 목적은 「학술의 중심으로서 넓게 지식을 습득하도록 함과 동시에 깊게 전문적인 학문과 예술을 연구하여, 지적, 도덕적 및 응용적 능력을 전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대학을 「대학이 가지는 기능(존재 의의)」면에서부터 본다면,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식을 사회로 환원」하는 조직으로서 설치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2.1.2.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의 변화

대학이 가지는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넘어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부터 본다면, 대학은 「개인적 기능」, 「실용적 기능(美用的機能)」, 「실리적 기능(美利的機能)」과 「지역사회 공헌기능」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대학은 본질적으로, 교육·연구 기능을 가지면서, 실용적 기능, 실리적 기능 외에도 현실 사회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역



〈그림 1〉 대학의 사회적 기능

- 3) 2007년 도시재생본부에 의해 시행된 대학과 지역조직과의 연계실태에 관한 조사를 말하며,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시청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각 시군구별 대학과 지역조직과의 연계실태, 연계조직과 주체, 연계를 통한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 4) 협정은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프로그램이나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찌즈쿠리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맺은 약속이므로,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활동이 어느 정도로 활발한지 간접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5) 정령지정도시시는 해당 자치 단체의 규모나 행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정되며, 지방자치법 상으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100만 명이 될 수 있는 8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를 말한다. 현재는 일본전역에 12개의 도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 6) 상기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협정체결 건수가 요코하마시 27건, 후쿠오카시 24건, 오사카시 12건, 나고야시 9건의 순으로 확인이 가능하였다.

사회 공헌기능 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능도 겸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이 지역과 사회의 접점으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대학의 기능

구 분		내 용
교육·연구 기능	개인적 기능	사회로부터의 요청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진리 추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연구 기능
	실용적 기능	사회 전체의 요청에 근거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인력을 양성 및 배출하여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연구 기능(예를 들면, 의학 분야에서의 실용적인 연구나 교육 분야에서의 교원 양성 등)
	실리적 기능	사회 전체가 아닌,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요청(요구)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 직접 곧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연구 기능(예를 들면, 개별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 교육, 기업과의 공동 연구나 공개강좌 등)
지역사회 공헌 기능		지역사회 전체와 개인, 특정 집단의 요청(요구)에 근거하면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적 기능

2.2. 대학과 지역사회간 협력의 개념

도시적 관점에서 대학은 교육·연구의 거점이자 고도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거점, 지역 내 소비·사회·문화 활동의 주체, 대규모 녹지와 휴식공간의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등에서는 대학이 주도적으로 도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거버넌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도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주변도시와 단절되어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의 본래 기능 중 하나인 지역사회 공헌 기능으로서 준공공적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⁷⁾.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준공공적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학과 지역사회간 협력은 양자 간 갈등의 과정을 거쳐 협력의 가치를 발견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각각의 독특한 공존의 해법을 찾는 프로세스(process)이다. 갈등의 과정 없이 대학과 지역사회는 서로를 배울 수 없으며, 상호협력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 실제 서구 대학과 지역사회 간 긴장관계를 지칭하는 ‘타운앤가운(Town and Gown)’의 역사를 보면, 대학캠퍼스가 확장하면서 건축과정에서 유발되는 소음, 교통, 과밀 등의 문제와 토지이용에 있어서 단기간의 변화, 대형건물의 집중적인 개발, 주택총량 및 구성비의 변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증가가 대학과 지역사회 간 갈등의 시초가 되었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운동(community activism)을 조직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을 실천하고 대학의 계획 활동이 지역사회 공동 이익에 기여하거나 상충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게 하였다. 대학 또한 글로벌 대학의 아이덴티티와 더불어 로컬대학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추며 지역사회와 대화하고 포용하는 협력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⁸⁾.

2.3. 대학과 지역사회간 협력의 필요성

대학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역의 중심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직·간접적인 교류를 통해 당해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동안 대학 캠퍼스는 도시와 지역사회에 대해 대학자체가 가지는 고용창출의 효과와 구성원들에 의한 경제적인 파급효과, 인구유입의 효과,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주변지역과 지역사회 환경의 개선효과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한편으로는,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도시화 과정 속에서 대학주변지역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가용 토지가 부족한 실정이

7) 류훈 2011, “대학캠퍼스가 주변도시에 미치는 역할, 상상”, 『Special Issue, URBAN AFFAIRS』.

8) 여혜진 외 3인 2010, “대학-지역사회 간 협력과 지역사회 재생”, 『도시정보』.

고, 높은 지가로 인한 토지소유자와의 갈등 속에서 상업용도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주거의 대량공급으로 인한 고밀주거지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대학과 주변 지역사회간의 갈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최근에는 대학캠퍼스 및 주변지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와 대학, 지역주민, 지역상인과 공공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한 상생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고 있다.

2.4.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동향 및 유형

우리는 그동안 지역에서 대학을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연관시켜 생각하고 활용하는데는 무관심했다. 사실, 대학도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고, 지역사회도 대학을 지역사회 발전의 매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큰 이해를 보이지 않았다. 어찌 보면, 그동안은 대학과 지역사회는 서로의 도움 없이도 성장이 가능했기에 그러했을 것이다. 간혹, 산학협력센터를 개설하고 지역 관련 연구를 하거나, 평생교육센터를 통해 주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⁹⁾.

앞으로의 대학은 젊고 유능한 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지역사회 발전의 싱크 탱크 혹은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미국¹⁰⁾과 일본¹¹⁾ 등의 대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캠퍼스와 주변지역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대학이 계획의 주체로 참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유형을 물리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는 연구¹²⁾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재구성 해보면 표2와 같다.

〈표 2〉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유형과 개념

연계 유형	유형별 성격 / 목적	개념	지역사회와의 관계		주요 국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계의 정도		
물리적 연계형	캠퍼스 내부 개발형	캠퍼스 개발과 확장	한정된 캠퍼스 부지 내에서 필요한 개발을 하는 형태	약함	없음	한국, 미국
	캠퍼스 경계부 확장형	캠퍼스 개발과 확장	캠퍼스 전접부지의 확보를 통해 개발을 확장해 가는 형태	중간	중간	한국, 미국
	신 캠퍼스 조성형	캠퍼스 개발과 확장	기본의 캠퍼스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개발하는 형태	중간	중간	한국, 미국
	도시재개발 사업형	캠퍼스 개발과 확장	캠퍼스와 주변지역이 일부 혹은 전면재개발을 통해 개발하는 형태	강함	중간	미국, 일본
기능적 연계형	지역사회 지원형	지역사회 지원 / 마을만들기 지원	대학내 조직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을 지원	강함	강함	미국, 일본
	지역사회 주도형	지역사회 주도 / 마을만들기 주도	대학내 조직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을 주도	강함	강함	미국, 일본

9) 김세웅 2011,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가능성”, 『Special Issue, URBAN AFFAIRS』.
 10) 미국 캘리포니아의 UC Berkeley대학의 2020 LRDP(Long Range Development Plan)에 의하면, 도시 주변의 특성과 도시적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CEF(City Environs Framework)를 통해 지자체의 토지이용방침과 캠퍼스 주변의 토지이용이 상호 모순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사전에 고려할 사항들을 주변의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의 과정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11) 일본의 경우는 지역분권화의 흐름 속에서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과 지역의 연계에 의한 마찌즈쿠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도시 재생에 있어서 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도시재생본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연계협동에 의한 도시재생의 추진」이라는 내용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결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12) 여혜진 외 3인 2010, “대학-지역사회 간 협력과 지역사회 재생”, 『도시정보』.

국내사례와 외국사례의 검토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유형은 캠퍼스 내부 개발형, 캠퍼스 경계부 확장형, 신 캠퍼스 조성형, 도시재개발 사업형, 지역사회 지원형, 지역사회 주도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국내의 대학들은 주로 캠퍼스 내부 개발형, 캠퍼스 경계부 확장형, 신 캠퍼스 조성형 등의 기능적인 측면보다 물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지역과 관계맺음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대학들은 국내의 대학들과는 반대로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나 교육적인 형태의 지원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직접 주도하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내 대학의 경우는 평생학습센터나 특별강좌 등의 개설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보다는 대학자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와 대학간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나 행정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3. 일본의 대학과 지역이 연계하는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활성화

3.1. 일본의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의 배경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대학들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대학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지역사회는 늘 분리되어 생각되어 왔으며, 대학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폐쇄적이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세계각지에서 대학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사회는 대학이 가진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일본도 지방분권화와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랫동안 마을만들기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해왔던 행정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지금까지 지역의 마을만들기를 주도하고 지원해왔던 지역의 자치조직들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그 기능들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1990년대부터 NPO와 시민조직이 새로운 마을만들기의 주체로서 활약하게 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서는 그동안 폐쇄적이며, 독립적인 존재였던 대학이 지역의 인적·물적·지적 자원을 토대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학생 수의 감소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학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학의 존재 의의를 설명하고 지역과 창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었음을 대학과 지역사회는 인식하게 되었다¹³⁾.

3.2. 일본의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의 동향

3.2.1. 일본에 있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동향

최근 일본의 대학들은 「대학전입시대(大学全入時代)¹⁴⁾에 들어서면서, 「국공립 대학(이하 「국립대학」) 독립 행정법인화」등의 영향에 의해 대학 고유의 교육이나 연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헌이나 연계, 협력을 통한 「대학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한 대학들이 입지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지방자치 분권화 흐름의 영향으로 「협치(協治:governance)」에 의한 지역사회활성화 및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등을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13) 이명훈 2011,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일본 도시재생 사례”, 『Special Issue, URBAN AFFAIRS』.

14) 2007년경 일본의 대학 입학 희망자 총수가 입학 정원의 총수를 밀도는 상황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대학의 정원이 미달하면서 수반되는 대학교육의 질에 관한 문제와 대학 정원의 불균형 분배로 인해 일부 대학들이 붕괴되기 시작한 시기를 말한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본부는 「대학과 지역의 연계에 의한 도시재생의 추진」을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결정했다. 이것은 ‘대학은 마을만들기의 과제에 관한 교육·연구와 마을만들기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전력해야 된다.’라는 인식 아래, 대학을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해 지방공공단체나 주민, NPO 등과의 다양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도시재생의 추진을 한층 더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도시재생의 추진을 위해 지역재생본부나 종합과학 기술회의와의 연계 아래, 문부과학성을 포함한 관련부서가 상호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사업과 함께, 최근에 일본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동향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 지역사회가 대학입지의 지연(地緣)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지역 연구교육의 중심으로써,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상업가로(商店街)의 활성화, 주거환경의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과 관련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대학의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소나 대학이 주체가 되는 NPO조직 등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간적, 기능적, 환경적인 측면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 대학이 그 지역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면서, 지역적인 차원을 넘어, 광역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인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적인 차원의 그린벨트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항, 산업화로 인한 이전적지의 활용과 도심부의 재생,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차원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셋째,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연구기관들은 지역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 등의 매칭을 통해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해 가면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물리적인 측면과 비물리적인 측면의 다양한 지역적 이슈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단계적, 다층적으로 지속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협동 체계의 구축을 통한 마을만들기 및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대학과 지역사회는 지역적인 차원 혹은 광역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여, 서로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 혹은 주체로써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을만들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표 3〉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내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세부 프로젝트 내용
1. 대학과 지역의 연계 강화에 의한 마을만들기의 추진	- 대학과 지방공공단체, 주민 등이 제휴 협동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촉진 - 마을의 활성화, 복지, 보건활동 - 지역 산업과 문화의 진흥, 관광 진흥 - 방법, 방향 대책의 추진
2. 실무적인 사회인 교육의 추진과 사회활동 참여 촉진	- 고령자, 어린이, 학생 등의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 촉진 -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기반 마련 - 지방공공단체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
3. 유학생·외국인·연구원 등에 의한 환경정비와 시민과의 만남·교류 촉진	- 유학생·외국인·연구원 등의 거주, 생활, 의료, 건강 등에 관한 인프라체제의 정비 - 외국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 - 전국의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 등과 시민과의 만남·교류의 촉진
4. 시민에게 열린 대학, 연속된 녹지의 확보 등 마을만들기와 조화를 이루는 대학 캠퍼스의 형성	- 대학 도서관 등의 시민개방 - 공원·녹지의 확보 - 대학을 활용한 방재 공간의 확보, 공공 교통의 정비·개선 - 지방특색산업, 관광 진흥 등을 위한 제휴 및 지원
5. 대학과 지역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	- 대학과 마을 만들기의 제휴를 촉진하기 위해 모델사업의 발굴과 지원 - 대학과 지방공공단체, NPO 등과의 정보 교환이나 인재의 교류 등을 통한 자주적·자발적인 제휴가 가능하도록 체제의 정비 - 지역 재생 본부, 종합 과학기술회의, 문부 과학성 등과의 제휴활동 강화

3.2.2. 일본에 있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유형

지역활성화와 관련하여 일본의 대학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본 전국 83개(대학원 조직만 있는 4개의 대학은 제외)의 국립대학의 홈페이지와 관계부서와의 전화, 이메일 조사¹⁵⁾를 실시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성격이 유사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분석 및 조사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에 의한 워크샵 추진 사례(8건), 대학과 지역사회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협정의 체결내용(792건), 도시재생 본부와 연계한 지역활성화 사업(62건)의 특성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동연구기관이나 평생학습 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역 과제에 대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고 있는 형태, 공동연구기관이나 평생학습 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이 주도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총괄하는 형태, 마을만들기의 전문가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본래의 목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표 4〉 일본의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유형

유형	마을만들기 지원형	마을만들기 총괄형	교육·서비스 제공형
특징	- 대학이 별도의 공공연구기관이나 평생학습센터 등을 설립하여 지역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을 지원하는 형태	- 대학이 별도의 공공연구기관이나 평생학습센터 등을 설립하여 지역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을 총괄하는 형태	- 대학이 마을만들기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인재 및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원하는 형태
대학의 역할	- 대학이 지역관련 사업의 파트너로서 참여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 지역사회에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 대학이 지역관련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연구소 등의 설립 주도 - 대학내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 대학이 지역관련 사업의 파트너로서 참여 - 교육프로그램 제공,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및 공부모임 등의 지원
관계도			

4. 요코하마시의 대학과 지역이 연계하는 마을만들기 추진실태 및 특성

4.1. 요코하마시의 대학과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동향 및 개요

요코하마시는 개항 이후, 다양한 국가와 도시들로부터 다양한 문화와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집적하면서, 현재는 인구 36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지적자산과 네트워크의 활용을 위해 2005년 3월부터 지역 내 대학들과 요코하마시는 상호 연계를 통한 성장과 발전, 대학과 지역이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추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를 설립하였다.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의 설립 후 지금까지 지역의 대학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6년 6월에는 향후 20년간 자치체의 기본적인 방향을 담은 「요코하마시 기본구상」을 책정하였는데, 여기서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都市像)을 「시민의 힘과 창조의 힘에 의한 새로운 요코하마 만들기」로 정하고 있다. 특히, 세계

15) 이 조사의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차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홈페이지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적인 전화나 이메일 조사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정리하도록 하였다(기간:2012년 9월 1일~2013년 2월 20일).

의 지식과 지혜가 모이는 교류거점도시로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나 주변지역과의 관계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요코하마시는 2012년 8월 현재 지역 내 30개의 대학·대학원·단기대학과 연계하여 평생학습강좌의 개설, 다양한 지역 이벤트에의 참여와 지역 자치조직과의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표 5〉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의 주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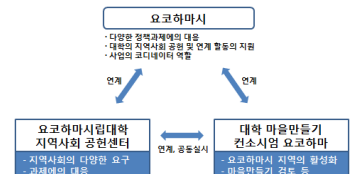
프로그램	내 용	개최년도
요코하마 학☆유(学☆遊) 축제	지역의 대학과 요코하마시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요코하마 지역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어필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이벤트 · 대학의 매력과 활동 · 공동연구내용 · 평생학습강좌 등의 소개	2006년도부터 매년 2회씩 개최
요코하마 대학 릴레이 강좌	각 대학의 특색과 우수한 분야를 살린 강좌의 개설을 통해 기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보다 다양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강좌	2007년도부터 년 중 수시 개최
요코하마 개항학교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 요코하마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요코하마로부터 미래의 일본·세계를 전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릴레이 형식의 심포지엄	2009년부터 년 중 수시 개최

4.2. 요코하마시의 대학과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추진방법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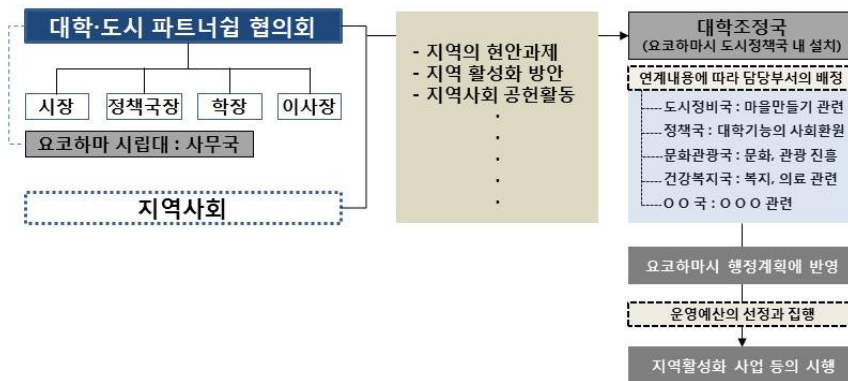
사례조사와 연구를 통해, 요코하마시의 대학과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추진방법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4.2.1.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의 설치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인 시민·기업·행정과 대학이 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 3월 지역 내 대학들과 요코하마시가 연계하여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를 설립하였다.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는 요코하마 시립대학을 사무국으로 하며, 대학간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교육, 연구, 인력, 학교시설 등을 지역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대학과 지역, 행정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과제해결이나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역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직의 구성원으로는 각 대학의 학장, 이사장, 시의 도시정책국장, 요코하마시 시장(협의회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의 관계구성



〈그림 3〉 대학과 사회의 연계활동의 절차

운영에 있어서는 별도로 정한 협의회 회칙에 근거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의 제기에서부터 사업시행까지의 흐름을 요코하마시 도시정책국 카와테(川手)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해보면 그림3과 같다.

4.2.2. 대학 마을만들기 컨소시엄 요코하마의 설치

요코하마 시립대학은 대학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지역사회 공헌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9년 4월에 지역사회 공헌센터를 설치하였다. 지역사회 공헌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에 위치한 카나가와 대학, 관동 학원 대학, 도쿄대학, 요코하마 국립 대학, 요코하마시립 대학의 제휴에 의해 「대학 마을만들기 컨소시엄 요코하마」를 조직하였다. 「대학 마을만들기 컨소시엄 요코하마」는 초창기 사업으로, 요코하마 시내지역과 교 외부의 마을만들기 검토, 요코하마 전체의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 요코하마의 도시문제를 해결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와 도시디자인 등에 관한 연계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4.2.3. 대학 조정국의 설치

2005년 4월에 대학과 지역과의 연계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시청의 도시경영국(이후, 도시정책국으로 이관됨)내 대학조정국을 설치하였으며, 지역사회와 다양한 니즈(needs)에 대해서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요코하마시의 도시정책국과 행정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대학조정국은 요코하마시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전담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조정국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로서, 대학의 자원이거나 요청사항·의향 등의 파악, 시청내의 다양한 정보의 제공, 행정과 대학사이의 상담 창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4.2.4. 대학과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선도적인 프로젝트의 선정

대학과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역연계의 추진을 위한 4가지의 방향성을 정하고 있다. 첫째는, 대학의 교육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둘째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제공, 셋째는, 지혜를 모아 새로운 요코하마의 경제를 개척, 넷째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도시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4가지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의 과제 25가지에 대해서 선도적인 프로젝트(Leading Projects)로 정하여 시범 프로젝트로 추진하였다.

4.2.5. SNS를 활용한 네트워크의 구축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가 호스트(host)가 되어 최근 유행하고 있는 SNS서비스 블로그(blog)¹⁶⁾를 오픈하였다. SNS서비스를 활용하여 요코하마시의 사무국, 요코하마시 정책국의 대학조정국에서는 지역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소개하고, 지역의 대학들은 각 대학에서 진행중 이거나 계획 중인 각종 이벤트나 행사 소식을 알림으로써,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손쉽게 행정 정보나 지역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 2011년 8월 16일 Facebook blog를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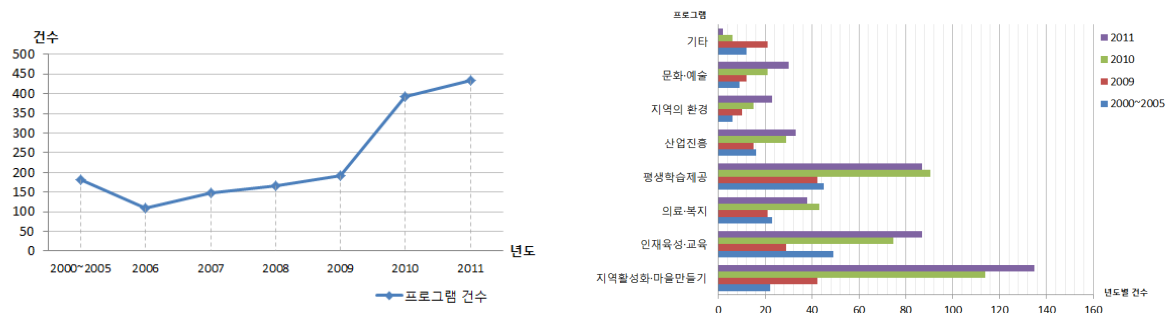
4.2.6. 지역 내 주요 대학들간의 연계 프로그램의 운용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앞서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 간의 정보교류 및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자주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2009년), 협정을 근거로 지역의 주요 역사적인 건축물의 보존 및 디자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요코하마시 문화창조 도시학교(Kitanaka School)를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도시 문화 창조와 도시 디자인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업 외에도 공개 강좌, 워크숍 형식의 강좌 등을 열어 요코하마시가 문화창조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재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4.3. 요코하마시 대학과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추진실태와 특징

요코하마시와 지역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의 추진실태와 현재 지역연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협의회 구성전과 구성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협의회 구성전의 연계 사례는 요코하마시에 직접 방문하여 2000년~2005년(5년간)의 시연감, 통계자료 등의 문헌자료와 시청과 관련구청을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 및 정리하였으며, 협의회 구성후의 연계사례의 경우는 요코하마시청의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1차적인 자료를 취득하고, 시청직원과의 이메일 등을 통해 자료의 해석 및 보완 작업을 수행하여 지역의 과제별로 세분화¹⁷⁾하여 정리 및 분석할 수 있었다.

각각의 연계 프로그램의 제목과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8개 분야 - 지역활성화·마을만들기, 인재육성·교육, 의료·복지, 평생학습제공, 산업진흥, 지역의 환경, 문화·예술, 기타 -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들 각 프로그램을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유형에 따라 구분해보면, 지역활성화·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은 마을만들기 지원형과 마을만들기 총괄형으로, 인재육성·교육, 의료·복지, 평생학습제공 관련 프로그램은 교육·서비스 제공형으로, 산업진흥, 지역의 환경,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은 마을만들기 지원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요코하마시의 경우는 주로 마을만들기 지원형의 형태의 사업이 많으며, 대학이 주체가 되어 마을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는 형태가 아닌, 대학이 주도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교육·서비스 제공형의 경우도 국내 대학에서와 같이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학의 재정수입 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과 주제를 발굴하여 대학별 각기 다른 커리큘럼을 만들어 실제 필요한 교육서비스의 제공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림 4〉 대학과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분야별 추진실태

17) 요코하마시 도시조정국 오쿠무라(奥村)씨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였음.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의 년도별 추진 건수를 비교해 보면,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의 설립 전 5년 동안 추진된 건수와 설립 후 1년 동안에 추진된 건수가 거의 비슷하며, 협의회 설립 후, 대학 마을만들기 컨소시엄 요코하마(大学まちづくりコンソーシアム横浜)와 요코하마 개항학교(よこはま大学開港塾)가 시작된 2009년 부터는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별 특성을 보면, 협의회 설립전과 비교해봤을 때, 지역활성화·마을만들기, 평생학습제공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 의료·복지와 문화·예술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의 프로그램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의 성격과 특성이 명확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건수의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2010, 2011년에 추진된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별 세부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이들 프로그램들이 발의(제안)에서부터 사업으로 시행되기까지의 진행절차를 분석해 본 결과, 각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공통적인 참여주체별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생학습제공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대학과 지역의 주민이나 기업의 연계로 시작됨을 알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행정은 대부분의 경우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부 프로그램의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었다. 지역의 환경이나 문화·예술, 의료·복지 등의 지역적인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행정이 사업시행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활성화·마을만들기나 인재육성·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경우는 대학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은 대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대학·도시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세부사업 및 진행 절차

대학의 연계 유형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의 예	대표적인 프로그램 진행 절차	
			발의(제안)	사업시행
마을만들기 총괄형 / 마을만들기 지원형	지역활성화·마을만들기	· 대학 마을만들기 컨소시엄의 설립 · 역주변지역의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 상업가로의 활성화에 관한 마을만들기 등		
교육·서비스 제공형	인재육성·교육	· 중고등학생을 위한 사이언스 캐리어 프로그램 · 각 대학간의 학술교류사업 · 교육위원회와 대학간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업 · 고등학교와 대학간의 연계사업 등		
교육·서비스 제공형	의료·복지	· 건강관련 시민대학 강좌 · 학생복지 보란티어(volunteer) 사업 · 심리상담사업 등		
교육·서비스 제공형	평생학습제공	· 시민참여 대학 · 시민을 위한 평생강좌 · 교양강좌, 취미활동과 관련된 강좌 개설 등		
마을만들기 지원형	산업진흥	· 산업진흥에 관련된 프로그램 · 대학생을 위한 지역 내 기업의 인턴십 기회제공 · 대학연계 각종 연구사업 · 산학연계 프로그램 및 사업의 추진 등		
마을만들기 지원형	지역의 환경	·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 · 마을 숲 가꾸기 등		
마을만들기 지원형	문화·예술	· 지역 축제 및 이벤트 개최 · 지역의 문화유산 발굴 사업 등		

1. ● : 대학, ▲ : 지역주민, ■ : 행정, ◆ : 기업, | : 연계, :: : 지원, → : 진행방향

2. 각 세부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발의에서부터 사업으로 진행되기까지 진행방법상(절차상) 참여 주체별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사례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5. 결론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성시가지에 있어서 지역 활성화의 문제, 나아가서 도시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도시재생에 관한 문제 등이 사회적인 이슈 혹은 도시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규모적인 면에서나 활동적인 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의 대학들은 도시환경의 정비와 지역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 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지역의 활성화와 재생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공생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대학들도 지역사회의 핵심 일원으로서 도시정비와 개발의 새로운 주체로서 역할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대학과 지역사회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지역적인 공생관계로서 인식되어 저야하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은 그 지역의 활성화와 재생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벌써부터, 일본과 미국 등의 대도시들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들의 일체적인 정비와 활성화를 위해 대학을 각 종 지역의 정비사업과 활성화 사업의 주체로 참여시켜 왔으며, 이들 지역들은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일체적인 정비를 통해 각종 사회적 문제의 감소,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이미지의 개선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일본의 요코하마시의 경우는 지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대학과 도시가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등을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 활성화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요코하마시가 이렇게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기까지에는 대학·도시 파트너쉽 협의회, 대학 마을만들기 컨소시엄 요코하마 등의 자주적인 단체를 조직하여 지역 활성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행정도 이들 단체와 주민들의 창구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부서 내에 대학조정국이라고 하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대학과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대응해서 다방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노력은 향후 여러 지자체에서 각 지역적인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행정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문화와 소통의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국내의 도시들 중 특히, 대학이 위치한 도시들이 앞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대학을 지역 활성화 사업의 주요 주체로 등장시켜 이들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본의 선진사례연구를 통해 사업의 추진과 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요코하마시를 사례로 하는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연구로서, 이들 도시 외에 다른 도시들에 있어서 일반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의 대학 도시들이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과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참고문헌

1. 김세용 2011,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가능성”, 『Special Issue, URBAN AFFAIRS』, 제46권, 제515호, pp.20-23.
 2. 김철수·김정아 2000, “대학캠퍼스 주변의 생활편익시설 이용패턴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5권, 제1호, pp.57-67.
 3. 류훈 2011, “대학캠퍼스가 주변도시에 미치는 역할, 상생”, 『Special Issue, URBAN AFFAIRS』, 제46권, 제515호, pp.24-28.
 4. 배용규·이창호 2007, “대학주도의 대학마을 재정비방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2권, 제6호, pp.89-104.
 5. 이명훈 2011,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일본 도시재생 사례”, 『Special Issue, URBAN AFFAIRS』, 제46권, 제515호, pp.33-39.
 6. 이창호 2009, “대학시설의 주변지역 전개에 의한 대학마을 재정비 / 일본 와세다대학교의 대학시설 주변지역 전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제10권, 제2호, pp.43-57.
 7. 여혜진 2006, “대학캠퍼스 지역사회의 기능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 보스턴 대학교의 펜웨이-켄모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제7권, 제3호, pp.53-75.
 8. 여혜진·김광중 2008, “대학-지역사회 협력적 계획의 한국적 여건”, 『국토계획』, 제43권, 제5호, pp.91-106.
 9. 宮本文人·谷口汎邦 他 1994, “大学キャンパスの囲み空間における物的特性と視覚的意味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第』, 第466号, pp.75-85.
 10. 渡辺定夫 1985, “都市における大学立地整備計画に関する研究”, 東京大学学位論文.
 11. 李彰浩·後藤春彦·三宅諭 2001, “大学周辺地域の衰退とまちづくり活動の展開-早稲田大学「西早稲田キャンパス」と周辺地域を事例として”,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No.542, pp.175-182.
 12. 小林 英嗣 他 2008, “地域と大学の共創まちづくり”, 『地域・大学連携まちづくり研究会』, 学芸出版社.
 13. <http://www.pref.kanagawa.jp/osirase/01/0102/daigaku/index.html/> (2013.1.4.).
 14. <http://www.toshisaisei.go.jp/03project/dai10/network.html/> (2013.1.4.).
 15. <http://www.city.yokohama.lg.jp/seisaku/daigaku/partnership/coordination/> (2013.1.4.).
- 투고 2013.04.11
 1차심사완료일 2013.05.10
 2차심사완료일 2013.06.30
 게재확정일자 2013.09.03
 최종수정본접수 2013.10.16